

# 국내 최대·최첨단 시스템 ‘품질경영’ 추구

## 철저한 품질관리와 차별화된 생산기술로 선도

- 교육홍보부 -



1953년 국내 최초로 작물보호제를 개발하며 녹색 혁명과 식량 자급자족에 기여해온 동부팜한농. 창립 이후 62년간 작물보호제기업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부팜한농의 구미공장(공장장:김상희 부장)은 우리나라 작물보호제 제조공장 중 가장 큰 최대규모와 최첨단 시스템을 자랑한다. 대지 14만 4068m<sup>2</sup>(43,580평)에 8개의 생산라인이 세워져 우리나라에 유통 중인 작물보호제의 모든 제형을 생산할 수 있다. 구미공장의 일평균 생산량은 300 톤, 연간 총생산량은 6만 톤을 넘어선다. 우리나라의 연간 작물보호제 유통량이 17만~20만 톤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하는 작물보호제의 1/3를 동부팜한농이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동부팜한농 구미공장은 “농업인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계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 철저하게 실행하고 있다”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신념과 기준으로 원재료 점검부터 제조 공정, 완제품 검증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 품질경영시스템으로 체계적인 품질 관리

특히 품질경영시스템을 철저하게 운영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동부팜한농은 제품 품질과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설계부터 입고, 공정, 출하, 고객품질의 5단계를 시스템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먼저 제품 설계에 있어서는 이상기후와 저항성 병해충, 잡초에도 우수한 약효를 발휘하는 작물보호제,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라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제형,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 개발에 힘쓰고 있다.

작물보호제의 원료인 원제, 부재료 등이 공장에 입고될 때의 점검과정도 까다롭다. 2000여 종에 달하는 모든 원제와 부재료는 순도, 물리성 등에 부적합요소가 있는지 검토한 후 본격적인 생산과정에 투입시킨다.

이어 공정단계에서는 생산한 제품들을 완제품으로 상품화하기 전에 각 제품의 모집단을 채취, 샘플을 시험한다. pH, 물에 고르게 퍼지는 정도, 유효성분 혼합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세밀하게 따져본 후 기준을 통과해야만 상품으로 완성될 수 있다.

출하하기 전에는 중량이 부족하지 않은지, 포장상태가 불량하지 않은지, 포장지 기재사항에는 잘못된 내용이 없는지에 대해 모두 합격점을 받아야 전국의 매장으로 유통시킬 준비가 끝난다.

고객품질 단계에서는 고객상담센터와 현장컨설팅 과정을 통해 고객들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즉시 개선하고자 공장과 전 영업부서, 연구소 등이 힘을 합친다. 이러한 전사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이 바로 62년간 작물보호제기업 1위 자리를 지키며 한국농업을 이끌어온 동부팜한농의 원동력으로 보인다.

동부팜한농 구미공장의 우수한 품질과 앞선 기술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매년 다양한 해외기관에서 구미공장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하고 해외업체들의 OEM(위탁제작)의뢰도 끊이지 않는다. 최첨단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임가공비가 경제적이고 품질은 우수하기 때문이다.

#### 전 제품에 큐알코드 도입 '업계최초'

동부팜한농은 작물보호제 전 제품의 포장지에 QR(큐알)코드를 새겨 넣고 모바일 홈페이지([m.agriculture.co.kr](http://m.agriculture.co.kr))와 함께 서비스 중이다. 모

든 제품에 큐알코드를 도입한 것은 동부팜한농이 작물보호제 업계 최초이다.

동부팜한농은 각 제품의 뒷면에 인쇄된 큐알코드라는 격자무늬 바코드를 통해 제조일, 제조라인, 생산 및 품질 담당자, 출하이력, 재고 및 반품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모든 제품에 대해 작은 결함까지 체크해 완벽한 품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큐알코드는 생산, 물류, 유통 시스템의 체계화 기반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작물보호제 안전 사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업인들이 논밭에서 작업하던 중 제품의 혼용정보나 특장점이 알고 싶은 경우 핸드폰을 제품 포장지의 큐알코드에 갖다 대는 것만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최신형 핸드폰을 가진 농업인들은 큐알코드 인식 프로그램을 핸드폰에 다운받고 핸드폰으로 큐알코드를 읽게 하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제품 성분부터 특장

점, 적용작물, 방제 가능한 잡초 및 병해충, 사용방법, 시험성적, 혼용정보 등 상세한 제품정보가 수록돼 있다. 사진을 찍는 것처럼 간단한 과정이라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하다.

한편 동부팜한농 구미공장은 도심지 소비자들에게 “작물보호제를 사용한 관행농산물은 위험하고 유기농산물만이 안전하다는 인식은 잘못된 맹신”이라며 “유기농산물의 경우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등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고 유해물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식중독과 같이 인체에 해를 끼치는 사례



가 적지 않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우수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전 생산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만큼 도시소

비자들께서도 작물보호제와 국내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⑩

## ● 동부팜한농 구미공장장 (김상희(金尙熙) 부장)

### ■ 보건, 환경, 안전 등 제조현장 여건 및 제품의 커다란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는 세간의 이목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 그에 대한 대응방안은?

약효가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기본입니다. 작물보호제를 생산하고 시장에 유통시켜 고객들이 구입하고 사용한 이후까지, 전 과정에 대해 고객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부팜한농은 생산기술과 품질관리시스템에 있어서 국내 독보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질경영시스템에 완벽을 기해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작물보호제에 관한 도시소비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작물보호제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홍보와 교육 등의 활동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국내 최대 및 선도 농약회사로서 산업 및 농업인의 기대가 큽니다.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적지 않을 듯 합니다만?

과거 보릿고개의 배고픔에 허덕이던 우리 농민들은 국내 최초의 작물보호제기업인 동부팜한농이 제초제 ‘마세트’, ‘라쏘’ 등을 개발하면서 비로소 잡초로부터 해방됐습니다.

동부팜한농의 제품과 기술에는 ‘최초’, ‘유일’의 수식어가 많습니다. 국내 최초의 수면부상성 입체형 논제초제, 수도용 일발처리 제초제의 노동절감형 입상제형화 기술 최초발표, 최초의 1kg 입제, 최초

의 1kg 이앙동시처리제 등 수십 개의 최초 수식어는 동부팜한농이 한국농업을 이끌어 온 과정의 산물입니다.

이제 동부  
팜한농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로 무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초제 ‘메타미포프’와 저독성 살충제 ‘비스트리플루론’원제 개발에 성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최근에는 신물질 제초제 ‘테라도’의 개발을 완료하고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유럽 등 21개 국가에서 특허 등록을 완료, 본격적인 세계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 올해 주요 계획과 실적은?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라 생력형 제형 작물보호제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설비와 환경 보존을 위한 설비를 정비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조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Quantum Jump 2015’ 목표 달성을 기여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원가절감, OEM 생산의 역수출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⑪

